



주간투자전략 (8/10~8/14)

이번 주 코스피, 무엇을 사야 할까 ... 반도체 장비주를 보자

- 이번 주 시장, 저점 확인 뒤 실적 성장주로 순환매가 확산되는 구간
- 미국 물가와 AI 인프라 실적이 이번 주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
- 지수 추격보다 이익 상향 업종을 놀림목에서 분할매수해야 할 시점
- 반도체 장비·조선·금융 중심으로 실적 성장주를 압축 선별할 구간

이번 주 국내증시는
“급락 이후 지수 복원”에서
“실적에 따른 주가 차별화”로
넘어가는 전환 구간

이번 주 시장, 저점 확인 뒤 실적 성장주로 순환매가 확산되는 구간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극단적 변동성의 정점을 통과한 뒤 저점 확인과 업종별 재평가가 진행되는 구간이다.

KOSPI 예상 밴드는 5,950~7,250pt로 제시한다. 하단은 미국 물가 재 반등, 중동발 유가 상승, 외국인 수급 불안이 겹칠 경우 열릴 수 있는 영역이며, 상단은 CPI·PPI 둔화와 금리 안정, AI 인프라 투자 지속, 비반도체 실적 개선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다. 현재는 지수 전체가 빠르게 회복되는 장세보다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차별화 장세로 판단한다.

미국 물가와 AI 인프라 실적이 이번 주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

금주 핵심 변수는 미국 7월 CPI·PPI와 소매판매, 고용 흐름, 중동 리스크, AI 인프라 기업 실적이다. CPI와 PPI가 예상보다 낮으면 금리 부담 완화와 성장주 반등에 우호적이지만, 근원물가가 재차 높아질 경우 장기금리와 달러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시스코·애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루멘텍·코어위브 실적은 AI 투자가 네트워크·광통신·반도체 장비로 실제 확산되는지 확인하는 기준이다. 외국인 반도체 순매수 회복과 주주환원 정책 구체화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지수 추격보다 이익 상향 업종을 놀림목에서 분할매수해야 할 시점

투자전략은 반등 추격보다 실적과 현금흐름이 개선되는 종목을 조정 시 나눠 사는 방식이 유효하다. 상승 요인은 변동성 정점 통과, 기업이익 전망 상향, AI CAPEX 지속이다. 하락 요인은 미국 근원물가 재 반등, 국제유가 상승, 외국인 수급 회복 지연이다.

특히 현재처럼 고금리 환경에서는 매출 증가보다 순이익·ROE·FCF가 동시에 개선되는 기업의 주가 차별화가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7,000선 부근에서는 추격매수보다 종목 교체와 비중 조절이 적절하다.

반도체 장비·조선·금융 중심으로 실적 성장주를 압축 선별할 구간

투자 유망 섹터는 반도체 장비·소부장, 조선, 방산, 에너지, 금융·증권, 유통·소비이다. 주요 관심 종목은 SK 하이닉스, 원익 IPS, 피에스케이, 주성엔지니어링, 이수페타시스, HD 한국조선해양, 현대로템, 삼성증권, 롯데쇼핑, 네이처셀이다.

원익 IPS와 피에스케이는 메모리·파운드리 투자 확대의 수혜가 기대되고, 조선·방산은 최근 이익 전망 상향 강도가 높다. 삼성증권과 롯데쇼핑은 비반도체 순환매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유효하며, 네이처셀은 임상·허가 이벤트 민감도가 높은 만큼 고위험 관심군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장으로 읽는 금주 투자 전략 요약]



[한장으로 읽는 금주 글로벌 경제지표 요약 및 전망]

① 주간 종합 요약

“ 물가는 소폭 둔화 속 기조는 반등, 소비·주택 둔화 지속
고용은 완만 냉각, 항로 리스크가 금리 변동성 확대 ”



성장·고용
완만한 둔화

- 고용 증가세 둔화
- 실업수당 소폭 증가
- 소비 회복 속도 제한



제조업·서비스
확장 지속

- 제조업 둔화 속 확장권 유지
- 서비스 견조하나 비용 압력 지속



물가·임금
상방 리스크

- CPI YoY 3.4% 전망
- 근원 CPI MoM 0.2% 반등 전망
- PPI 플러스 전환



정책·금리
동결·신중

- 연준 금리 동결 전망
- 케빈 워시 연준의장 신중한 스탠스
- 인하 기대 9월 이후



지정학 리스크
지속

- 미·이란 긴장 지속
- 호르무즈 불확실성
- 유가·금리 변동성 확대



주요 리스크 : 미·이란 긴장·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 호르무즈 해협 정상 통항 불확실성 상존
- 유가 변동이 물가·금리·시장 심리에 직접 영향



② 주요 경제지표 일정 및 전망

일자	시간	외화	이벤트	예측	이전	한줄 핵심 코멘트
8/10 (월)	-	-	주요 경제지표 발표 없음	-	-	CPI 앞두고 관망, 항로 뉴스 주목
8/11 (화)	23:00	US	기존주택판매 (7월)	4.05M	4.09M	높은 금리로 주택 거래 둔화 지속
8/12 (수)	21:30	US	소비자물가지수 (YoY) (7월)	3.4%	3.5%	헤드라인 물가 소폭 둔화 전망
	21:30	US	소비자물가지수 (MoM) (7월)	0.1%	-0.4%	월간 물가 플러스 전환 전망
	21:30	US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MoM) (7월)	0.2%	0.0%	기조 물가 반등 여부가 핵심
	23:30	US	원유재고	n.a	2.479M	재고보다 항로 리스크가 더 중요
8/13 (목)	21:30	US	생산자물가지수 (MoM) (7월)	0.2%	-0.3%	기업 비용 압력 재반등 가능성
	21:30	US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202K	199K	소폭 증가하나 해고 급증은 제한적
8/14 (금)	21:30	US	근원 소매판매 (MoM) (7월)	0.2%	-0.2%	근원 소비 반등으로 하방 압력 완화
	21:30	US	소매판매 (MoM) (7월)	0.1%	0.2%	전체 소비 증가세 둔화 전망

③ 핵심 해석 및 시사점



① 성장·고용

- 고용 증가세 둔화 지속
- 실업수당 소폭 증가
- 소비 회복 속도 제한

완만한 둔화, 연착륙 가능성



② 물가·정책

- 헤드라인 물가 소폭 둔화
- 근원 물가 반등 가능성
- 연준 동결 전망, 인하 9월 이후

물가 상방 리스크, 금리 변동성 확대



③ 리스크·변수

- 미·이란 긴장 장기화
- 호르무즈 통항 불확실성
- 유가·금리·환율 변동 확대

지정학 리스크가 시장 좌우



투자자
체크 포인트

✓ 물가 둔화
지속 여부

✓ 기조 물가
반등 확인

✓ 고용·소비
냉각 속도

✓ 항로 리스크와
유가 동향

✓ 금리·달러
변동성 대응

[한장으로 읽는 금주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요약]



핀릿 리서치센터



Analyst 김영진

現 독립리서치 핀릿 대표 & 연구위원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운용전문인력

부동산투자 자산운용사

매경, 한경 등 주요 언론사 Best Analyst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자산배분 본부장

하이자산운용 헤지펀드 운용실장

K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대행

NH 투자증권 / LIG 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등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자료 작성자 김영진은 자료 제공일 현재 이 자료에 언급된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선행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는 당사 저작물로서 모든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를 당사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고지사항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